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초 19개주 최저 임금 일제히 인상
- WSJ: 트럼프 관세, 예상 보다 인플레 상승 크지 않아

[미국 금융]

- WSJ: 미 구리, 지난 여름 관세 급등 후 처음으로 최고가
- WSJ: 시장 응답자들, “올해 증시 성장 기대”

[뉴욕시]

- CNNBusiness: 뉴욕시 Mamdani 시장 업무 도전은 생활비 부담
- Bloomberg: 맨해튼 주택 거래 증가, 모기지 금리 인하 영향

[트럼프 행정부]

- WSJ: 민주당 또다른 셧다운을 위협하지 않은 이유

[오일]

- WSJ: 사우디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 3개월 연속 인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YahooFinance: 현대,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생산 경쟁에 맞서다
- WSJ: 어떻게 3달러 장바구니가 국제적인 상징으로 거듭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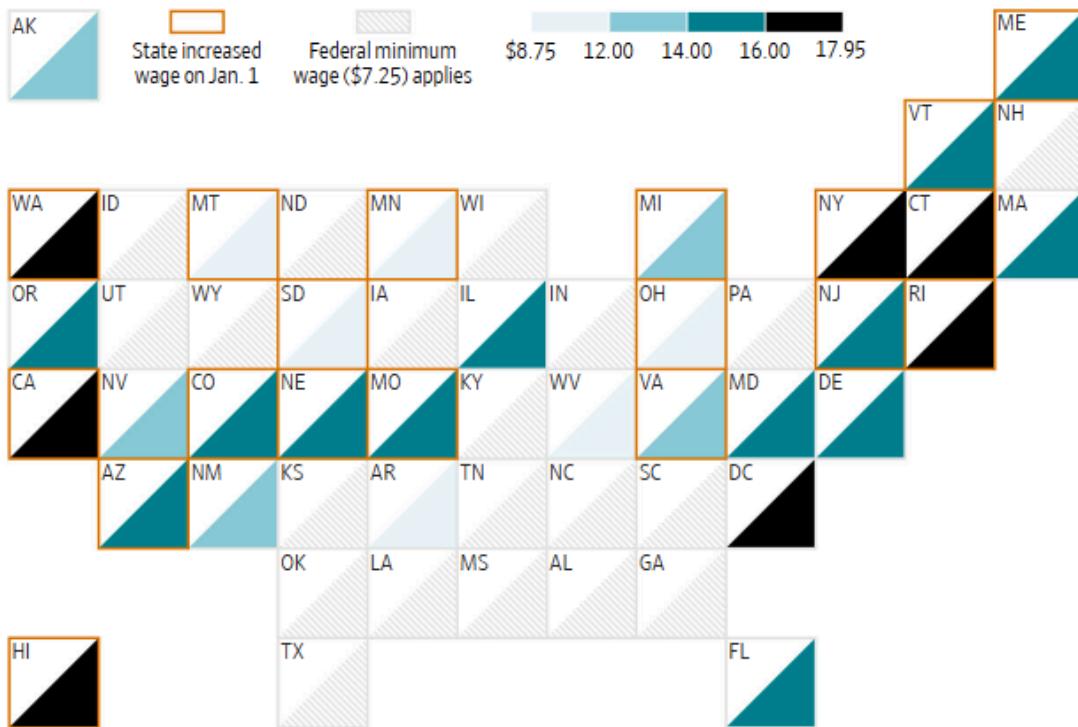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Sweeping Minimum-Wage Hikes Take Hold Across the Country

올해 초 19개주 최저 임금 일제히 인상

- 올해 초 19개 주가 최저 임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 방식은 인플레 물가 연동 조치와 새로운 관련 법 제정, 주민 투표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에 따라 8백30만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최고치의 최저 임금을 주는 지역은 워싱턴주로 시간당 17달러 13센트이며 가장 인상폭이 높은 지역은 하와이로 2달러 높인 시간당 16달러다.
- 시간당 15달러 이상 최저 임금을 실시하는 주가 늘어났으며 이들은 연방 최저 임금 7달러 25센트를 훨씬 초과했다.

2026 minimum wage by state



기사

WSJ: Do Tariffs Cause Inflation? New Studies Offer Surprising Answer 트럼프 관세, 예상 보다 인플레 상승 크지 않아

- 노스웨스턴대 이코노미스트 보고서 등 련 2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조치들이 높은 인플레를 야기 시키지 않았다.
- 한마디로 높은 관세가 인플레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 관세로 고용이 둔화되고 제조업 지수가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가 소비자와 비즈니스 수요를 낮춰 경제를 저해하는데 높은 수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제한시킨다고 말한다.

기사

[미국 금융]

WSJ: U.S. Copper Prices Set First Record Since Summer Tariff Surge 미 구리, 지난 여름 관세 급등 후 처음으로 최고가

- 미 구리가 지난해 7월 최고치를 뛰어 넘어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다. 수요는 급등하는 반면에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수요 급등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전기차, 재생 에너지 연료를 위해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공급은 줄고 있는데 새로운 광산 건설 소요 기간이 길고 Grasberg 광산 등 기존 광산의 사고 등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 Stock Bulls Dominate in Survey of 2026 Sentiment**시장 응답자들, “올해 증시 성장 기대”**

- 시장 투자자들은 올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블룸버그 조사 Markets Pulse는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42%가 S&P 500의 경우 10% 또는 그 이상 올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구체적으로 10%에서 20% 이하 상승은 31%, 20% 이상은 11%를 차지했다.
- 한편 응답자들은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응답자의 4분의 3은 달러 약세가 내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시]**CNNBusiness: Mayor Mamdani's new job: Fixing New York's affordability crisis****뉴욕시 Mamdani 시장 업무 도전은 생활비 부담**

- 전형적인 뉴요커 가구는 임대료에 임금의 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험리스 쉘터에 10만명이 잠을 자고 있다.
- 현재 뉴욕시 시민중에 15%에 해당되는 1백40만명은 식품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 컨센스국에 따르면 2살짜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당 33만4천달러를 연간 벌어야 한다는 것.
- 뉴욕시장에 새로 취임한 Zohran Mamdani는 뉴욕시 근로자 이슈를 들고 나와 60년만에 사상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임대료 동결과 비용이 부담없는 주거지 건설을 약속했으나 많은 비영리 기관들과 보조금 주택을 운영하는 개발업자들은 비용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뉴욕시는 현재 경제가 둔화되고 연방 보조금이 삭감되고 예상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Bloomberg: Manhattan Home Sales Climb, Juiced Up by Lower Mortgage Rates**맨해튼 주택 거래 증가, 모기지 금리 인하 영향**

- 2025년 4분기 맨해튼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 이는 모기지 금리가 기존 7%에서 6.15%까지 하락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구매자들이 시장에 다시 유입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 4분기 동안 약 2,600건의 거래가 성사됐으며 콘도와 코옵 거래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코옵 거래는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콘도 거래를 앞질렀다.
- 거래는 현금 구매자가 시장을 주도하며 전체 거래의 65%가 무용자 거래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WSJ: Why Democrats Aren't Threatening Another Shutdown This Time
민주당 또다른 셧다운을 위협하지 않은 이유

- 민주당은 2025년 말, 일명 오바나 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43일간의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주도했으나, 결국 큰 성과 없이 셧다운을 해제해야 했다.
-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들은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연방 공무원 무급 휴직,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SNAP) 중단 등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현재로서는 경계하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은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셧다운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오히려 '민생을 살피지 않는 민주당'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하면서 셧다운 위협 대신 공화당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표명하거나 타협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일]

WSJ: Saudi Arabia Cuts Flagship Oil Price to Asia for Third Straight Month
사우디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 3개월 연속 인하

-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3개월 연속 인하했다.
-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Saudi Aramco는 Arab Light crude 2월 가격을 오만 및 두바이 평균 대비 배럴당 \$0.30 높게 책정했는데, 이는 전월의 \$0.60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 Saudi Aramco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대상 모든 원유 등급의 가격도 일제히 하락 조정했다.
- 이번 조정은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시장 상황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YahooFinance: Hyundai is taking on Tesla and others in race to mass-produce humanoid robots
현대,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생산 경쟁에 맞서다

- CES 2026에서 현대는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는 가장 발전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인 Altas를 2028년부터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반에는 시퀀싱 위주로 배치하고 2030년까

지 부품 조립 등 복잡한 업무로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제조 부문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하여 부품, 물류, 제조를 아우르는 end-to-end 로봇 벨류체인을 구축하고 로봇 구독형 서비스 (RaaS)도 확대할 방침이다.
- 현대뿐만 아니라 Tesla, Apptronik, Nvidia 등도 휴머노이드 로봇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WSJ: How a \$3 Grocery Bag Became an International Status Symbol

어떻게 3달러 장바구니가 국제적인 상징으로 거듭났나

- 2.99달러에 판매되는 트레이더조 토트백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트레이더조 매장이 없는 런던, 서울, 멜버른, 도쿄 등에서는 리셀 가격이 \$50,0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인기는 과소비가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로 볼 수 있다.
- 더불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로고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과 달리, 트레이더조의 로고는 미국 지역 특색을 담은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도 인기비결로 꼽힌다. 해외 소비자들은 트레이더조 토트백을 자유주의적이고 트렌디한 이미지와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